

# 民衆이데올로기의 偽裝性和 欺瞞性

# 民衆이데올로기의 偽裝性和 欺瞞性

강 인 덕

# 目 次

1. 問題의 提起 .....	3
2. 「民衆」의 辭典的 意味 .....	5
3. 民衆論者들의 「民衆」 概念 .....	9
4. 民衆이데올로기의 實踐 理論 .....	15
가. 變形된 階級鬭爭 論理 .....	15
나. 大韓民國 正統性的 否定 論理 .....	18
다. 反反共 論理 .....	22
라. 反美·反安保 論理 .....	25
마. 聯共統一 論理 .....	28
5. 民衆이데올로기의 僞裝性和 欺瞞性 .....	32

## 1. 問題의 提起

人間은 言語를 通해 自身의 思想, 感情 그리고 意思를 傳達한다. 때문에 言語는 人間 相互間의 心的 內容을 서로 傳達하는 社會 活動으로 理解된다.

그런데 같은 言語라 하더라도 各 社會集團에 따라, 또는 時代的 變化에 따라 달리 解釋되는 境遇가 許多하다.

그 理由는 言語가 그 時代의 그 使用者의 思想이 內包되어 있기 때문이다.

스탈린은 이점을 指摘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람들, 個個의 社會的集團들, 階級들은 言語에 대해 결코 無關心 할 수 없다. 그들은 自己들의 利害關係에 맞게 言語를 利用하며 自己들의 特殊한 語彙, 特殊한 述語, 特殊한 表現들을 그 言語에 強要하려 努力한다. …… 그래서 階級的 方言, 通用語, 社交적 言語가 創造된다』<sup>1)</sup>

이 말은 같은 言語라 하더라도 使用하는 사람이나 階級 階層에 따라 서로 다른 意味를 表現하기 때문에 相互 理解하는데 困難한 境遇를 創出해 낸다는 事實을 示唆하고 있다.

우리 民族은 過去 어느때보다 言語에서 이러한 困境에 直面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 原因은 말할 必要도 없이 分斷 40年間 南北間에 전혀 다른 異質的인 體制가 形成되어 言語의 共通性마저 毀損당해야 하는 不幸한 처지

---

註 1) 스탈린選集 3卷, 「마르크스主義와 言語學의 諸問題」, p.409.

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70年代 以後 開催되었던 數次의 南北對話는 같은 民族間에 같은 言語를 使用하지만 南北代表가 使用하는 같은 言語가 서로 다른 意味로 表現하고 있음을 實證 해 주었다. 「人民」, 「自主」, 「民主」, 「合作」, 「民族」等 統一問題를 論議 함에 있어서 必須的인 用語라 할 수 있는 말들이 包含하는 意味는 이미 서로 다른 뜻으로 變化되어 있었다.

그런데 最近에 와서 이런 言語上의 困境이 南韓 內部에도 번져가고 있다. 그 代表的인 말 가운데 하나가 「民衆」이라는 用語이다.

「民衆」이라는 用語는 이미 오랫동안 우리가 使用해 오던 말이며 새로이 創造된 말이 아니다. 그러나 民衆이란 用語를 자주 使用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 이말의 意味는 달리 解釋하게 되었다.

「民衆」이라는 말이 새로운 意味를 나타내는 用語로 流行하기 始作한 것은 70年代 부터이며 特히 이 말을 즐겨 使用하는 사람들의 政治的 行態가 注目받기 始作한 것은 80年代 부터이다.

最近에 와서 이 單語는 體制顛覆을 企圖하는 左傾急進勢力의 信念을 나타내는 用語로 까지 發展하였다. 「民衆」이라는 말은 單純히 進歩然하는 改革論者나 文化 知識人들의 用語로써가 아니라 革命을 企圖하는 急進勢力의 이데올로기를 象徵하는 用語로 變化되었다.

때문에 筆者는 「民衆」이라는 말에 새삼 注目하지 않을수 없으며 나아가 이 말을 즐겨 使用하는 사람들의 企圖와 그들의 實際的인 政治行態를 分析해 봐야 할 時期에 왔다고 생각한다.

## 2. 「民衆」의 辭典的 意味

우리나라에서 發刊된 國語辭典이나 北韓에서 出版된 「조선말 사전」에는 한결같이 「民衆」이란 用語의 意味가 過去에 비해 크게 變化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우리나라 辭典의 例를 보자.

1961年 出版한 이희승教授의 「國語大辭典」은 民衆을 『(1) 多數의 國民, (2) 모든 國民을 同等하게, 단지 일원(一員)으로서 본 전체(全體)』<sup>2)</sup>라고 解釋한 바 있는데 最近에 나온 같은 辭典에는 『國家나 社會를 構成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흔히 被支配階級으로서의 一般大衆을 가리킴』<sup>3)</sup>이라 定義하고 있다.

「民衆」의 意味가 『國民을 同等하게 단지 一員으로서 본 전체』로부터 『흔히 被支配階級으로서의 一般大衆』으로 바뀌고 있다.

한 사람이 著述한 國語辭典이 이처럼 時代의 變遷에 따라 「民衆」을 國民全體라는 非階級的 意味에서, 國民속의 한 部分—被支配階級—이라는 階級性을 띤 解釋으로 變化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런 變化는 勿論 우리社會의 變化에서 起因했다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民衆」이라는 用語를 즐겨 使用하는 知識人들의 意識的 努力의 結果가 影響을 미쳤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이 된다.

---

註 2) 「國語大辭典」, 이희승編, 1961年 初版 1978年版, 민중서관 發行, p.1083.

3) 「國語大辭典」, 이희승編, 1986年 수정증보판, 민중서림 發行, p.1328

그러면 여기에서 처음부터 마르크스主義에 立脚하여 歷史發展을 認識하는 北韓共產主義者들은 「民衆」을 어떻게 解釋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1962 年에 出版한 「조선말사전」은 民衆을 「人民大衆」<sup>4)</sup>이라고 簡略하게 規定하였다. 1981 年에 出版한 「현대조선말사전」 역시 民衆을 「《人民大衆》을 달리 이르는 말」<sup>5)</sup>이라고 規定하고 있다.

그러면 「人民大衆」이란 무엇인가?

62 年版 「조선말사전」에는 「人民大衆」이란 項目이 없고 「人民」이란 項目을 記述하고 있다. 아마도 「人民大衆」과 「人民」을 동의어로 認定한 때 문인듯이 보인다.

이 辭典이 記述한 「人民」은 『(1) 한나라 또는 여러나라를 包括하는 一定한 地域의 住民 (2) 나라 안에서 사는 基本的인 勤勞大衆, 階級社會에서는 支配階級の 支配를 받고 있는 勤勞大衆을 말한다』<sup>6)</sup> 라고 記述하고 있다.

즉 「民衆」을 「人民」과 同意語로 보고 『支配階級の 支配를 받는 勤勞大衆』이라고 解釋하고 있다.<sup>7)</sup>

---

註 4) 「조선말사전」, p.1555, 1965 年版, 「과학원출판사」 發行

5) 「현대조선말사전」, p.1052, 1981 年版, 「과학·백과사전출판사」 發行

6) 위 p.4863.

7) 北韓共產主義者들이 마르크스主義 신봉자라는 事實을 勘案할때 (1) 項의 解釋보다 (2) 項의 解釋이 그들의 眞意를 들어낸 것이라 보고 (2) 項을 擇했다.

그런데 81年版 「현대조선말사전」에는 「民衆」을 「人民大衆」이라 記述하고 다시 「人民大衆」이란 項目을 設定하고 있다.

「人民大衆」에 대한 이 辭典의 解釋은 『《歷史를 創造하는 主體이며 社會를 發展시키는 힘있는 動力으로 되는 階級과 階層들》을 통털어 이르는 말. 革命과 建設의 主人은 人民大衆이며 革命과 建設을 추동하는 힘도 人民大衆에게 있다』<sup>8)</sup>고 記述하고 있다.

北韓에서 發行한 이 두가지 辭典을 比較해 볼때 그들은 처음부터 「民衆」을 「人民大衆」 또는 「人民」의 동의어로 보고 마르크스主義 唯物史觀에 立脚하여 「民衆」의 階級性 - 被支配階級 - 을 明白히 記述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歷史의 創造者로서, 그 原動力으로서의 民衆』을 強調하며 階級鬭爭의 側面에서 民衆의 役割을 記述하고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獨裁의 正當性을 強調하는 方向에서 「人民大衆」의 意味를 記述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注目할 것은 南北韓에서 出版된 辭典을 比較해 보면 우리側의 「民衆」에 對한 解釋이 北韓에서 記述한 「支配받는 階級」이라는 解釋과 비슷하게 바뀌었다는 點이다.

물론 같은 말을 使用하는 南北韓이 같은 單語에 對해 같은 意味를 附與하였다는 것은 歡迎할만 한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 辭典도 굳이 民衆에 階級性을 附與하며 再解釋해야 하느냐? 라는 疑問을 提起하지 않을 수 없다.

---

註 8) 위 p.2873.



勿論 「民衆」이라는 單語를 階級的인 觀點에서 「被支配階級」 또는 「支配 당하고 있는 庶民」으로 規定했다고 하여 마르크스主義的 觀點에 依據했다고 主張하는 것은 誤解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誤解를 除去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南韓에서 使用하는 民衆이라는 用語가 過去 보다는 훨씬 北韓側이 즐겨 使用하는 「階級社會에서 支配 받는 人民」 또는 「人民大衆」이라는 用語에 接近해 가고 있다는 事實만은 否認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社會 內部에도 事物에 對한 分析을 階級鬭爭, 階級間的 對立을 重視하는 立場에서 있는 知識人의 發言權이 증대하고 있음을 立證하는 하나의 例로 보지 않을 수 없다.

### 3. 民衆論者들의 「民衆」概念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民衆」이라는 用語를 즐겨 使用하는 知識人들과 運動家들이 規定한 「民衆」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民衆社會學을 主張하는 學者의 民衆概念은 『生産手段에서 疎外되었기에 收奪당하게 되고 統治手段에서 疎外되었기에 抑壓당하고, 威光(Prestige) 手段에서 疎外되었기에 差別당하는 被支配者』로 規定하고 있다.<sup>9)</sup>

이는 總體的으로 疎外된 被支配者를 民衆이라고 規定하고 그 중에서도 政治的 疎外가 經濟的 疎外 못지 않게 重要的 獨立變數의 힘을 발하게 되며 이 點에서 『民衆은 階級과 다름 수가 있으며 階級이 民衆 概念속에 包含될 수가 있지만 民衆이 階級概念에 從屬될 수는 없다』고 主張한다.

때문에 生産手段의 所有與否로 支配者와 被支配者—資本家와 프롤레타리아트로 區分하는 마르크스主義와는 다르다고 強調한다.

또한 民衆은 自意識의 所有與否에 따라 「即自的 民衆」과 「對自的 民衆」으로 가름하고 「對自的 民衆」은 다시 그 「깨달음의 깊이」(自身이 被支配者에 屬한다는 事實에 대해 깨달음)에 따라서 「自意識的 民衆」, 「批判的 民衆」, 「行動하는 民衆」으로 漸次 發展한다고 하면서 終局에 가서는 行動으로 자기 解放을 爭取하기 위해 鬪爭하되 「宗教的 信仰과 確信을 가지고 殉教하는 마음으로 支配秩序에 挑戰하는 民衆」을 「目的志向的인 民衆」이라 하였다.

그런가 하면 民衆運動에 參與하고 있다고 自處하는 民衆運動家は 民衆을

---

註 9) 한완상, 「民衆과 社會」, P.79, 1984 年版, 鍾路書籍

다음과 같이 規定한다.

첫째로 밥을 빼앗긴 사람이 民衆이라고 생각한다. 저마다 일한 만큼은 自身과 家族의 밥이 保障되어야 한다. 또 保障되는 것이 勞動의 原理이다. 그런데 外部로부터의 要因 즉 制度라던가 勢力이라든가 施策등에 의해 빼앗길 수 밖에 없는 狀況에 處해 있는 그 사람들이 民衆이다.

둘째, 防衛能力이 없는 사람이 民衆이라고 본다.

빼앗으려는 勢力, 制度, 施策등에 對抗할 수 있는 힘이 없는 者, 組織이나 智慧, 勇氣등이 없어 그저 참으면서 살아온 사람, 이것이 내 팔자라고 諦念하면서 歷史의 뒤안길에서 신음하고 있는 무리가 바로 民衆이다.

세째, 歷史의 主人이 되고자 하는 恨을 품고 있는 사람이 民衆이라고 規定한다.

빼앗긴 것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고 挫折하지 않고, 希望을 拋棄하지 않고 있는, 때문에 恨이 맺혀 살고 있는 사람이 民衆이라는 것이다.<sup>10)</sup>

이 民衆運動家の 民衆概念은 밥을 빼앗기면서 그 밥을 빼앗은 內的·外的條件에 抗拒하면서 恨을 품고 自己解放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 民衆이라는 것이다.

또 어떤 民衆神學者는 『社會의 矛盾된 構造 때문에 疎外되고 抑壓당하며... 人間 울타리 밖에 살게 되어 있는 그런 集團』까지를 합하여 民衆이라 하였으며, 때문에 이들은 『새 歷史의 主人이 되고 새 歷史를 열 苦難 받은 메시아』라고 하였다. 아마도 그는 民衆運動을 指導하는 인물들의 役割을 強調하고 있는듯 보인다.

이외도 많은 民衆主義者들이 民衆에 關한 概念을 提示하고 있지만, 비슷비슷한 規定들이다. 要約해 보면 民衆이란 우선 억눌리고, 소외당하고

註 10) 「民主·統一」, 1985年1月號, 民主·統一 國民會議 發行, P.62.

이창복, 「民衆이란 무엇인가」

搾取당하는 被支配階級을 指稱하며 이들이 스스로 자기 位置를 깨닫고 自身을 억누르고, 소외시킨 體制와 制度를 構造的으로 變革하기 위해 鬪爭하는 사람들을 뜻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좁게 보면 자기 자신의 解放을 위한 鬪爭이 되고 넓게 보면 人間解放을 위한 온갖 抑壓體制나 搾取制度와의 鬪爭을 展開하는 메시아의 사람들이 바로 民衆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社會構造를 壓迫과 被壓迫, 搾取와 被搾取로 보고 權力있고, 잘 살고 名譽있는 사람은 民衆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者는 民衆이라는 主張이다.

여러 部類의 民衆論者들의 主張은 각기 다르나 한가지 問題, 즉 抑壓하는 者와 抑壓받는 者, 搾取하는 者와 搾取당하는 者, 支配者와 被支配者를 낳은 이 社會를 變革시키지 않고서는 壓迫받는 者, 疎外된 者의 自己 解放을 가져올 수 없다는 結論에는 一致하고 있다.

때문에 民衆論者들이 主張하는 既成體制에 抗拒하는 民衆을 現實에 適用해 보면 急進的인 青年學生들이 主張하는 具體的인 民衆概念으로 變하게 되는 것이다.

體制否定과 體制打倒를 主張하는 젊은이들이 具體的으로 規定한 民衆은『우리나라의 買辦獨占資本家와 官僚를 除外한 나머지 新中産階級, 中小商工業者, 貧農, 勞動者, 零細商人, 都市貧民등도 民衆概念에 包含되나 이 制度를 打倒하려고 正面에 나서는 實踐的이고 革命的 民衆은 勞動者, 農民, 零細商人 및 都市貧民으로 限定되며 따라서 民衆은 이들 實踐的이고 革命的인 被支配階級의 聯合』으로 되는 것이다.<sup>11)</sup>

왜 젊은 急進的 青年學生들은 學者들이 提示한 民衆의 一般概念을 다시

註 11) 高大學生會, 「一步前進」, 1985, 여름, PP. 80-82.

革命的 民衆과 非革命的 民衆으로 區分하려 하는가?

위에서 民衆學者들이 提示한 支配와 被支配의 論理에 따라 우리 社會를 보면 7個의 階級으로 構成되어 있고, 그 중에서 4個階級은 支配階級이고 3個階級은 民衆으로 區分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첫째階級인 買辦獨占階級은 帝國主義와 結託하여 막대한 財貨와 權力을 움켜쥔데다가 民族全體를 背信하는 反民族的, 反民衆的 性格을 띤 現政權과 이를 둘러싼 大企業家이기 때문에 당연히 打倒의 으뜸으로 되는 反民衆的 支配階級이라는 것이다.

둘째階級인 新中產階級은 獨占資本家の 가장 튼튼한 支持者로서 勞動階級을 管理해 준 代價로 自身이 創出した 勞動價値보다 더 많은 報酬를 받고 있는 經營管理者를 비롯하여 專門技術者, 高級將校(中領級以上), 高級官僚, 大學教授, 企業화된 病院의 醫師, 大教會의 牧師들로 構成된 階級이기 때문에 獨占資本家보다는 所有한 財産이나 權力에서 한段階 낮은 位置에 있으나 이들은 反民衆的 現制度를 擁護해야 自身の 地位를 確保할 수 있다고 믿는 者들이기 때문에 反民衆的 階級이라는 것이다.

셋째階級인 中小商工業者들도 民衆에서 除外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階級에는 中小企業의 商品製造業者, 商業, 서비스業, 建設業, 運輸業, 不動產貸業, 漁業, 鑛業등 經營者와 藥師, 漢醫師등이 包含되며, 經營이란 側面에서는 大財閥과의 對立되는 關係에 있지만 이들 역시 自己들이 所有한 經濟的 餘力을 擁護하고 維持하는 길은 이 制度를 擁護함으로 可能하다고 보기 때문에 反民衆的 階級이라는 것이다.

넷째階級인 富農階級은 農村에서 剩餘土地를 貧農에게 小作을 주기도 하고 高利貸金的인 資金을 빌려주고 利子를 받으며 비싼 農機械를 사서 貧

農에게 賃貸하여 利益을 取함으로서 貧農과는 階級的 葛藤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이 階級에 속하는 階層은 富農뿐만 아니라 釀造業, 精米所業, 小商人 등과 함께 農村地域의 中産層을 이루는 소위 農村的 有志들이 포함되어 이들도 現 制度下에서 자기의 작은 支配的 權利를 享有할 수 있으므로 反 民衆的 性格을 띤 階級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4 階級을 우리나라의 支配階級으로 보고 이에 속하지 않는 者를 被支配階級—民衆으로 規定한다.

이 被支配階級에는 勞動者, 貧農, 都市零細商人 등 3 個階級이 包含된다.

여기에서 注目할 것은 勞動者라고 하여 民衆的 意識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며 특히 勞動者의 上層部는 支配階級の 配慮에 따라 항시 그들의 利益을 擁護하기 위해 變質할 수 있으므로 일단 現 支配體制를 전복하기 위한 民衆運動의 主導階級(實踐的이고 革命的인 民衆)에서 除外해야 한다는 것이다.<sup>12)</sup>

우리는 當初 民衆主義者들이 規定했던 民衆의 概念이 어느새 社會體制를 反對하고 이 體制를 전복하기 위한 鬪爭의 論理로 發展했음을 볼 수 있다.

오늘의 民衆論者들은 우리社會를 支配者와 被支配者間的 切열한 階級鬪爭이 展開되는 社會로 더 이상 累積된 矛盾의 剔抉없이는 被支配階級을 救濟할 수 없는 邪惡한 社會로 단정한 論理위에 革命을 促求하는 理論으로 民衆論을 發展시켰음을 理解할 수 있다.

왜 民衆이 이처럼 처참한 形편에 놓여 있는가? 이들을 解放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구제를 위한 原理」, 「被支配階

---

註 12) 「民衆 民主主義 民族革命運動의 基本概念을 定立하자」, PP.15-16.

級의 解放原理」를 論議하게 되면 자연히 우리 社會를 打倒의 對象으로 革命의 正當性和 不可避性を 立證하는 方向으로 論理를 發展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經濟的인 資本主義와 政治·社會的인 自由民主主義의 그 自體를 支配集團의 支配論理라는 側面에서 단정적으로 拒否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自由民主主義는 買辦獨占資本가와 買辦官僚들이 자기 利害를 은폐하고 獨裁體제의 構築을 위한 外皮로 使用되어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認定할 수 있으며…… 따라서 植民地, 半植民地 나라들의 反帝國主義, 反買辦鬪爭過程에서 형성된 새로운 聯合勢力인 民衆에 의해 革命으로 打倒되고 民衆이 主體가 되는 새로운 社會를 建設해야 한다』고 主張하기에 이르렀다.

우리가 念慮하는 것은 바로 이 點이다.

基督教的 信仰이나, 人間 사랑과 人間解放의 崇高한 思想의 발로로 民衆을 舉論하고 財力도 없고, 權力도 없고 威光도 없는 一般庶民의 立場에서 그들을 구원해야 하는 것이 참된 社會運動이라 主張하던 民衆論이 이제 이 社會를 革命으로 전복시킬 수 밖에 없는 惡의 構造로 規定하는 독선적인 理論으로 바뀌었으며 나아가, 이러한 革命理論에 立脚하여 實際的인 革命을 주도할려는 勢力이 形成되게 되었다.

우리가 가장 警戒하는 마르크스主義도 처음에는 商品生産過程에서의 人間의 疎外問題를 論하였고, 그것이 점점 發展하여 資本主義의 부정은 물론 人類歷史의 發展을 階級鬪爭으로 規定, 職業的 革命가에 의한 體制顛覆의 正當性を 立證하는 마르크스·레닌主義로 發展하여 급기야 러시아에서의 볼셰비키革命을 成功시켜 人類歷史에 가장 殘虐한 全體主義的 獨裁國家를 出現시켰다.

歷史上 出現했던 모든 革命理論은 同調者의 信念體系를 支配하여 目的을 위해 手段을 正當化하는 獨善的 論理로 構成되어 있다.

民衆理論이 出現하여 오늘에 이르는 10 數年동안 이 理論은 젊은 勢力에게 깊이 浸透하여 民衆을 이데올로기化하여 자신들의 信念體系를 形成하고, 改良的 方法이 아닌 革命的 方法에 의해 社會發展을 成就할려는 暴力의 崇拜者로 變質시키고 말았다.

## 4 . 民衆이데올로기의 實踐理論

앞에서指摘한대로 民衆論者들은 抑壓받고 搾取當하고 疎外된 民衆이 存在하는 理由는 根本적으로 體制와 制度의 잘못에 基因한다고 主張한다.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現在의 「抑壓制度」와 「搾取制度」를 變革시킬 것을 기도하고 있다.

이를 위한 그들의 論理는 綜合적인 理論體系를 形成하고 政治, 經濟, 文學藝術, 教育등 各方面에서 分野別 實踐理論들을 開發하고, 各分野別 實踐鬭爭을 展開하고 있다.

그러면 그들의 主要한 實踐理論을 살펴보기로 한다.

### 가. 變形된 階級鬭爭 論理

民衆論者들은 自身들의 論理가 마르크스主義와 分明히 區分된다고 主張한다. 그러나 우리 社會를 分析함에 있어 支配와 被支配의 論理, 가진자와 못가진자간의 熾熱한 鬭爭이 存在하는 社會로 規定한다.

그들은 階級鬭爭이라는 用語를 가급적 피하고 있으나 支配者와 被支配者間的 鬭爭인 이상 두 階級間的 階級鬭爭이라는 概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支配者를 擁護하는 體制와 制度가 存在하는 한 被支配者의 權益擁護는 不可能하다고 主張하는 한, 被支配者의 解放은 體制打倒를 통해서만 비로소 達成될수가 있는 것이다.

어느 한쪽이 屈服하지 않는한 이 두 階級間的 鬭爭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할때 「歷史는 階級鬭爭의 歷史」라고 한 마르크스主義者들의 命題



와 一致하게 된다.

비록 支配者들이 存在하는 矛盾을 除去하기 위해 새로운 政策을 提示했다 하더라도 被支配者가 이에 만족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民衆對 非民衆間의 對立과 鬭爭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이런 理由에서 民衆이 데올로기는 階級鬭爭의 論理라 할 것이다.

과연 歷史가 階級間의 鬭爭에 의해 發展했는가? 또 階級과 階級間의 關係는 그 처럼 對立·鬭爭하며 兩立할 수 없는 不相應의 關係인가?

歷史가 말해 주듯 社會階級間의 關係는 民衆論者들의 主張처럼 불(火)과 불간의 關係로 對立·鬭爭만 계속해 온 것이 아니다.

만약 이와같이 鬭爭만 계속했다면 새로운 建設이나 發展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生産과 文化가 可能했던 理由는 階級間의 葛藤과 對立만이 存在한 것이 아니다. 階級間에 對立과 鬭爭을 超越하는 實質적인 人的, 物的 또는 理念的 交流가 進行되는 가운데 葛藤이나 鬭爭보다 相互 協力이 이루어진 結果였다고 할 것이다.

民衆論者들이 主張하는 것처럼 民衆은 歷史의 創造者이고, 非民衆은 歷史의 毀損者가 아니었다.

어떤 階級이나 時代의 發展에 따라 그 內部的 分化作用을 이르기면서 서로 利害對立 關係를 調整하는 가운데 共存해 왔다.

歷史속에는 人類社會의 滅亡을 豫言하는 「메시아」라고 稱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다.

共產主義者들도 自身을 프롤레타리아의 「前衛部隊」로, 「革命의 參謀部」로 稱했으며 그들은 資本主義體制를 打倒하는 革命의 成功과 함께 프롤레

타리아의 地上樂園을 建設할 수 있다고 主張했지만, 나타난 結果는 그들 위에 君臨하여 絶對的 支配者로 탈바꿈하였고, 歷史上 그 類例를 찾아볼 수 없는 全體主義的 獨裁國家를 形成하였다.

階級鬭爭을 武器로 하여 새로운 社會를 建設했다고 한 그들은 곧 새로운 階級으로 絶對多數의 勤勞大衆을 抑壓하고 搾取하는 存在로 된 것이다.

이것은 「메시아」라 自稱하는 者들의 本色을 理解하는데서 重要的 歷史的 教訓으로 될 것이다.

어느 한 階級을 絶對惡으로 몰아 부치는 것이나, 어느 한 階級을 絶對善으로 단정해 버리는 것은 歷史發展의 原動力을 理解하는 態度가 아닐 것이다.

最近 中共에서는 歷史發展의 原動力이 무엇인가?에 관한 論爭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마르크스主義의 命題에서 벗어나지 않은 限界內에서의 論爭이지만 이 論爭에서조차 歷史發展의 原動力은 階級鬭爭이 아니라 「各種 矛盾運動의 合成力」이라고 主張하는 學者도 있다.

그들의 主張은 『近代中國에서는 帝國主義, 封建主義, 官僚資本主義의 3大敵의 가혹한 搾取와 抑壓이 中國人民의 方向과 鬭爭을 불러 일으켜 階級鬭爭과 武裝鬭爭이 계속되었다. 이런 意味에서 階級鬭爭이 中國歷史 發展의 主要한 直接的인 原動力이었던 것은 事實이다. 그렇다고 하여 階級鬭爭이 中國近代史를 前進시킨 唯一한 原動力이라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事實은 生産鬭爭, 科學技術發展을 위한 鬭爭도 中國近代史를 前進시킨 위대한 原動力이었다. 이러한 史實이 立證하는 바와 같이 人類의 歷史는 社會의 基本 矛盾과 그 主要 表現形態-生産鬭爭, 階級鬭爭, 科學實驗이 相互 補完, 制約등으로 作用하면서 歷史를 發展시키고 있다』<sup>13)</sup>고 主張하고 있다.

---

註13) 北京週報, 1980. 9. 2, p.20, 「宋士堂, 李德茂의 主張」

우리 社會를 7個階級으로 區分하고 네階級の 非民衆(抑壓階級)과 세階級の 民衆(被抑壓階級)으로 兩分하고 서로 不相應의 鬭爭을 展開하는 듯이 分析하는 것은 階級鬭爭을 歷史의 原動力이라 規定했던 마르크스主義者들의 잘못된 社會分析을 되풀이 하는 過誤를 犯할 뿐이다.

오늘의 民衆運動家가 내일의 새로운 支配階級으로 될수 있음은 共產主義 國家의 例에서 얼마든지 豫言할 수 있다.

이런 意味에서 改良을 위한 妥協의 길이 歷史發展의 길이고, 民間 相互 間의 利害對立을 縮小하는 最善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自由, 民主主義體制를 否定하고 이를 顛覆시키는 것이 最善의 길이 아니라 이를 維持하며 이 속에서 調和와 妥協을 통해 階級間의 葛藤을 解消하고 相互 共榮할 수 있는 生産的이고 建設的인 길을 摸索하는 것이 보다 民衆을 위한 길이 될 것이다.

西유럽이나 北유럽의 國家에서 우리는 보다 淨化된 社會規範과 縮小된 階級間의 葛藤을 볼 수 있다. 民衆의 要求가 그만큼 充足된 때문임을 否定할 수 없을 것이다.

#### 나. 大韓民國 正統性的의 否定 論理

民衆運動者들의 主張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大韓民國의 正統性을 否定하는 것이다.

1980 年에 記述한 어떤 民衆論者는 明白히 이렇게 말한다.

『解放 當時에 全體 人口中에서 4분의 3이 農民이었다고 하는데 南韓 쪽에 成立된 政權은 4분의 3을 排除한 地主 내지는 小商工資本家들의 利益을 擁護하고 強化시켰고, 여기서 美國이라는 外勢가 들어 왔기 때문에 도

대체 民衆이라는 農民 그리고 이후 工業化가 進行되면서 늘어나기 始作한 勤勞者들의 問題提起가 금기처럼 되었다.』

이 글의 앞 부분은 우리나라의 正統性的 問題를 論한 것이고 그 뒷부분은 그간의 政府가 民衆을 도외시한 過誤를 指稱하는 글이다.

그런데 最近에는 이 정도의 主張은 오히려 體制擁護派의 論理처럼 되었다.

民衆論者들은 의례히 우리나라는 美國의 植民地支配下에 있는 從屬國家로 規定할 뿐만 아니라 美·日 帝國主義 國家의 獨占 資本家들의 利益을 擁護하는 帝國主義 앞잡이가 우리의 歷代 政府라는 것이다.

이를 立證하기 위해 解放以後 國內에서 일어났던 左翼共產主義者들의 모든 騷擾, 暴動事件을 民衆運動으로 美化하고 있다.

濟州島暴動, 大邱暴動, 麗順反亂事件등을 한결같이 美帝國主義 侵略을 反對하고 民族統一을 희구하는 民族主義 계열의 民衆抗爭 運動이었다고 말한다.

그 한 예로 「麗順反亂事件」에 대한 記述을 引用해 보자.

『美軍政에 의해 組織된 國防警備隊에 들어간 一般 士兵들은 주로 農村出身이었는데, 이들 出身階層의 대부분은 빈농에 속했다. 따라서 軍 內部에는 民族主義的 雰圍氣가 팽배하고 있었다.

麗水의 第14聯隊에서는 이러한 雰圍氣 속에서 48年10月19日 南韓單獨選舉를 反對하여 일어난 濟州島 民衆抗爭을 鎮壓하기 위한 衝突을 拒否하며 「警察打倒」 「濟州道出兵拒否」 「南北統一」을 主張하며 3,000餘名の 士兵들이 총궐기하였다. 총궐기한 軍人들은 麗水의 警察署, 官公署 등을 占領하여 麗水一帶를 掌握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麗水의 民衆들은 軍人들과 合勢하여 「濟州島 出兵 絶對反對」

「美軍撤退」 「人民共和國支持」를 내세우며 蜂起하였고 分斷에 反對하여 統一國家를 세울것을 主張하며 美軍政에 대해 鬭爭하였다. 8日間に 걸쳐 麗水一帶에는 民衆에 의한 自體的인 行政組織까지 만들어졌다.』<sup>14)</sup>

결국 大韓民國政權은 民族主義者들의 統一運動과 民衆의 民主化 要求를 묵살한 買辦資本家와 地主階級(이른바 反動勢力)이 美國의 꼭둑각시가 되어 單獨政府를 樹立했으니, 政府樹立 當時부터 正統性的 確立은 생각할 수 조차 없었다는 論理이다.

우리 政府는 反民族的, 反民主的 暴壓政府였고 反動的 幫派集團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美國의 世界戰略의 前哨基地로 轉落시켜 버렸다는 主張이다.

이런 立場에 서서 우리 政府의 行蹟을 分析하고 있으니 北韓共產主義者들의 6.25 南侵도 역시 歪曲의 限界를 넘어 美化되고, 統一을 위한 民衆의 革命으로 主張하는 것이다.

6.25 戰爭에 대한 運動圈 學生들의 主張을 보자

『이 戰爭으로 危機 狀況에 逢着했던 이승만 政權은 戰爭의 混亂中에 反對勢力을 除去하면서 獨裁體制의 強化가 進行되어, 危機 克服의 前기를 마련 했다. 그리고 이 戰爭을 통해 冷戰에 基礎한 美國의 世界戰略에 있어 韓半島의 戰略的인 價値가 確實히 評價되면서 以後 反共封鎖體制의 前哨基地로 確實히 位置지워 진다.

결국 韓國戰爭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開戰의 責任이 누구였던 간에 또 어떤 目的이었던 간에 分斷을 克服하고자 하는 民衆들의 統一意志가 表出되었다고 볼 수 있고, 또 韓半島에 있어 統一은 外勢의 척결이 이루

---

註 14) 「光州民衆抗爭의 民衆運動史的 照明」, 1985.5, pp.20 ~ 21.

어지지 않는 한 不可能하다는 教訓을 던져주고 있다』<sup>15)</sup>

. 北韓共產主義者에 의해 惹起된 6.25 事變, 民族史上 最大의 참극을 招來한 이 戰爭에 대한 記述이 이 정도라면 다른 問題는 더이상 論할 必要가 없을 것이다.

누가 侵略했는가가 問題가 아니라 統一하려고 한 戰爭(그들의 表現은 民衆의 統一意志의 表出로 記述됨)이었기 때문에 正義로운 戰爭이라 規定해야 한다는 뜻이다.

先制攻擊이던, 奇襲攻擊이던 共產主義者가 恣行하는 戰爭은 歷史發展의 必然性에 根據하여 展開되는 戰爭이기 때문에 無條件 「正義의 戰爭」이고 이를 反對하는 戰爭은 그것이 아무리 防禦的 戰爭이라 하더라도 歷史發展에 逆行하는 戰爭이기 때문에 「不正義의 戰爭」이라고 規定하는 마르크스主義者의 戰爭觀과 흡사하다.

北韓이 統一하려 한 戰爭을 우리側이 沮止시켰다고 해서 그것이 民衆의 統一念願을 背信한 것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民衆論者들이 主張하는 民衆의 利益이란 어떻게 해야 保障된다고 보는것인지? 알수가 없다.

共產主義體制가 形成되면 民衆의 權利가 保障된다고 보는 것인가? 『베트남은 統一된 것이지 赤化된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視角과 별 差異가 없다. 이런 視角에서 歷代 大韓民國 政府를 罵倒하고 있다.

開發途上國家의 主要課題가 무엇이고 이를 達成하기 위해서 어떤 開發戰略을 採擇해야 하는가는 이미 臺灣, 싱가포르, 홍콩, 韓國등 NICS 國家의 經驗에서 充分히 立證되고 있다. 技術과 資本蓄積의 過程을 거쳐 現代工業國家로 進入하기 위해서는 역시 資本主義的 모델을 택해야 하였고 이때문

註 15) 「이화언론」, 1985.6.18, p.5, 「6.25 戰爭의 再照明」

에 先進工業國家와의 經濟協力은 不可避한 것이었다.

그래서 歷代 政府는 美國과의 關係, 日本을 비롯한 先進工業國家와의 經濟, 外交, 軍事的關係를 緊密히 進行시켰다. 經濟發展 優先政策으로 勤勞者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 나라를 美·日帝國主義의 植民地, 從屬國家로 規定하고 祖國과 政府를 이들의 괴뢰로 罵倒해도 되는 것인가?

民衆論의 視角에서 보면 國際經濟協力關係를 從屬理論的 視角에서 評價하게 된다.

그러나 從屬理論의 始發國인 라틴아메리카 國家들의 經濟的 破綻이 國際經濟協力の 結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對內 經濟政策과 政治不安의 연속으로 인해 結果된 것임은 이미 公知의 事實이다.

이런 意味에서 우리는 民衆論者들이 우리나라의 正統性을 否定하는 主張의 思想的 源流에 대해 새삼 注目하게 된다.

民衆論者들은 스스로 마르크스主義者가 아니라고 主張하지만 그러나 이들의 主張 속에는 다분히 北韓共產主義者들의 革命理論과 革命이데올로기가 浸濕하고 있음이 그들의 글을 통해 立證된다.

#### 다. 反反共 論理

民衆論者들은 「反共이데올로기의 克服」이라는 말을 자주 使用한다.

反共이데올로기가 支配者의 이데올로기로, 가진자의 이데올로기로, 民族 相互間의 不信을 조장하는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冷戰時代의 產物로 6.25 事變 經驗의 蓄積으로 既成世代의 意識속에 자리잡은 反共이데올로기를 和解의 時代, 變化하는 時代의 이데올로

기로 바꾸지 않으면 여전히 支配者가 被支配者를 統制하고 가진자가 못가  
진자의 分配要求鬭爭을 抑制하는 도구로 될 뿐이라는 主張이다.

물론 冷戰時代의 反共이데올로기가 和解의 時代, 對話의 時代의 이데올로  
기로 남아 있어서는 안되며 6.25 事變 당시의 經驗的 反共이 6.25 戰爭  
을 모르는 젊은이들에게 강요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이러한 民衆論者들의 反共이데올로기의 克服 主張이 어느새 反反  
共이데올로기로 發展하였다.

최근 大學街에 나붙는 대자보나 팜프렛을 보면 反共이데올로기가 民主化  
를 가로 막는 反動的이데올로기라는 것이다.

이제는 공공연하게 北韓共產主義者들의 主張에 동조하여 資本主義 體制의  
전복을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8.15 解放과 함께 南北韓에 진주했던 蘇聯軍과 美軍을 評價함에  
있어서 蘇聯軍은 「解放軍」으로 美軍은 「占領軍」으로 記述하고 있다.

(87年 4月 3日字 「民主廣場」은 당시의 布告文을 掲載하고 그 題目을  
「占領軍인가, 解放軍인가?」로 달고 있다)

과연 당시의 南北韓의 占領軍이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한 資料調査를  
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 알수가 없다.

反共이데올로기의 克服을 主張하던 民衆論者들은 이제 反共이데올로기를  
反對하고 그 뿌리를 뽑자는데로 發展하고 있다.

러시아革命 以後 70年의 蘇聯歷史가 立證하듯이 共產黨이 提示했던 平  
等の 綱領은 이미 消滅되고 反人民的, 反民族的 全體主義國家로 전락한 國  
家로 되었다.

北韓을 보자. 一黨獨裁를 넘어 1人體制, 世襲體制로 나가고 있지 않는가?



私有財産制度를 廢止하고 共有 共產의 原理하에 中央集權的 計劃管理體制와 集團的 經理方式을 導入한 結果, 그들은 經濟生産의 原動力인 人間의 創意力을 完全히 抹殺하였고, 극단적 官共產主義者들이 제시했던 社會主義社會建設로 유토피아적 平等을 이룩할 수 있다던 主張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全體主義的 獨裁型的 反人民的, 反프롤레타리아的 一黨獨裁의 階級國家를 만들고야 말았다.

私有財産制의 廢止와 中央集權的 命令經濟體制로의 轉換은 經濟發展의 原動力인 人間 創意力の 發揮를 不可能케 하였고 극심한 官僚主義는 人間의 勞動意志를 극도로 침체시켰다.

鄧小平의 말대로 소비에트식 社會主義 經濟體制는 惡平等 — 貧困의 平準化를 招來했을 뿐이다.

全體主義的 一黨獨裁體制下에서 人間의 自由나 人權이니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存在할 수 없다.

共產黨의 組織原則(民主集中制)이 이를 禁止시키고 있다.

이런 理由에서 우리는 共產主義이데올로기를 反對하는 것이다.

최근 中共, 蘇聯, 東歐 共產國家에서 一黨獨裁, 階級鬭爭, 民主集中制, 中央集權的 計劃·管理制度 등을 修正하는 經濟體制와 政治體制 計劃에 着手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共產主義를 택했고 共產國家에서 조차 마르크스·레닌主義의 거짓된 예언을 깨닫고 體制改編에 着手하고 있는 판국에 어떻게 우리가 共產主義를 反對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民衆論者들이 主張하는 바와 같이 우리 社會內에 對立하는 支配階級과 被支配階級間的 葛藤과 矛盾이 누적되고 있다면 다른 先進工業國家에서 처

럼 改良과 修正을 통해 克服해 나가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修正과 改良을 拒否하고 暴力에 의한 資本主義體制의 打倒를 主張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民衆을 위한 길이 아니며 특정 소수의 職業的 革命家의 脫權을 위한 宣傳煽動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우리는 6.25의 쓰라린 經驗을 바탕으로 反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크스·레닌主義가 人間解放을 拒否하는 때문에 反對하는 것이다.

#### 라. 反美·反安保 論理

民衆論者들의 主張중 가장 強力한 部分은 駐韓美軍 撤收와 安保政策 反對의 論理이다.

그들은 우리나라를 美國의 從屬下에 있는 半植民地國家로 規定한다.

美國의 보호에 의해 國內 資本家와 執權者들은 民衆에 대한 가차 없는 彈壓과 수탈이 可能하기 때문에 民衆革命을 가능케 하는 客觀的 條件의 造成은 먼저 美國의 植民地 從屬狀態에서 解放하는 길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駐韓美軍의 撤收를 實現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駐韓美軍의 存在는 南北間의 統一을 가로 막는 原因인 同時에 우리나라를 核基地化하며 民族의 生存權을 威脅한다고 主張한다.

또한 美軍의 駐屯은 우리 文化에 대한 양키文化의 침습을 加速化시켜 民族文化 自體가 威脅에 놓이게 만들었다고 主張한다.

이러한 主張은 民族의 自主性を 強化시킨다는 名分論에서는 지당한 主張이라 理解할지 모르나,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南北韓의 軍事情勢와 北韓共產主義者들의 對南戰略과 견주어 볼 때 지극히 危險한 主張이라 아 니할 수 없다.

民衆論者들이 民衆의 解放을 앞세워 그 根源의 除去로 駐韓美軍 撤收를 主張하는 것은 바로 北韓共產主義者들의 對南戰略에 말려 들고 있다는 證據이라 할 것이다.

第2次世界大戰 以後 지금까지 共產主義運動의 侵略은 크게 보아 두가지 形態로 갈라진다.

그 하나는 開發途上國家에로의 浸透戰術로 民族解放運動을 유발시켜 여기에 武力介入하거나 武力支援을 통해 반공진영과 용공진영 간의 武力鬪爭으로 發展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先進 西方國家에로의 浸透戰術로 反核運動이나 反戰運動을 유발시켜 그 나라의 安保政策을 弱화시킨다는 것이다. 이것은 西方國家의 다른 地域이나 他國에 대한 支援力量을 弱화시킨다는 間接的 效果를 기할 수 있었다.

지금 우리나라의 民衆論者들의 反美主張은 民族의 自存과 自主를 名分으로 우리의 安保力量을 急激히 弱화시키는 北韓共產主義者의 戰略과 일치한다고 하겠다.

民衆論者들은 또한 우리國軍을 「美國의 傭兵」으로 매도하는가 하면 우리 政府가 推進하는 國民的 武裝力의 形成을 理論적으로 反對하고 있다.

그 예를 民衆教育論者들의 글에서 찾아 보자

『反共教育이라 불리우는 것은 軍事教育인데 이 教育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아픔을 주는 것이 우리의 支配勢力을 友邦으로 보고 우리 民族을 敵으로 規定하는 것이죠... 또한 政治적으로 不自由와 經濟的 不平等도 對內的 秩序維持라는 명목으로 눈감아야 되고, 軍事教育을 통해 劃一的인 命令에 服

從하는 人間을 만들 뿐만 아니라 手段方法을 가리지 않고 目的을 達成하려는 思考 그리고 我 아니면 彼라는 이분법적 사고 속에 國民에게 不信感을 造成하고 兒童期에 〈매려잡자〉등의 잔인한 標語로써 靑少年들의 잔인성을 유발시키고 核保有를 오히려 자랑으로 삼아 戰爭文化를 육성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sup>16)</sup>

美國을 우리의 支配勢力으로 보고, 反共教育은 分斷을 위한 教育이며, 國民的 武裝力을 育成하려는 政策은 戰爭文化의 育成으로 「靑少年을 잔인하게 만드는 教育」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는 오늘날의 南北狀況을 分明히 깨닫고 말을 해야 한다.

누가 侵略을 위한 軍事力을 強化하고 있는가?

누가 暴力을 最高의 手段으로 規定했는가?

北韓 共產主義者들이야 말로 暴力的 武裝을 最高의 手段으로 認定하고 있다. 暴力에 對應하는 가장 有效한 手段은 防禦的 暴力以外에는 없다.

만약 南北對話를 통해 平和統一을 기할려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北韓의 暴力에 對應하는 우리의 防禦的 暴力을 準備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軍事力이라는 뺨을 벗어 놓고 會談場에 들어 간다면 그들은 會談을 통해서가 아니라 暴力을 통해 우리를 併呑하려 할 것이다.

共產主義者와의 協商을 통해 무엇이든 爭取하려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튼튼한 安保對策의 樹立이 必要하다.

---

註 16) 民衆教育(1), p.23

이것은 對共協商의 基本原則이다.

民衆論者들의 主張처럼 감상적 民族觀에 立脚하여 우리의 防禦的 暴力的 準備를 소홀히 한다면 베트남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6.25 事變 당시 聯合軍이 우리를 支援해 준 것은 우리國民의 투철한 自由守護意志가 存在함을 確認한 때문이었다.

스스로 武裝解除한다면 그것은 共產主義者들에게 우리 스스로를 검탈하도 록 내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 마. 聯共統一의 論理

民衆論者들의 主張은 終局에 가서 統一問題에 終着된다.

왜냐하면, 外勢 帝國主義國家의 獨占資本가와 國內 買辦資本의 二重的 搾取하여 놓여있는 民衆을 解放하기 위해서는 統一의 길 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民衆을 搾取하는 帝國主義의 獨占가와 買辦資本가를 同時에 除去하자면 民衆에 의한 統一이 實現될때 自動적으로 解決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論理에 따라 그간 歷代 政府가 提示했던 모든 統一方案을 全面 否定하며 새로운 統一勢力을 形成하여 民衆에 의해 統一을 推進하는 길만이 民衆의 利益과 民族의 自主성을 同時에 成就할 수 있다고 主張한다.

그들의 主張을 보자.

『 殖民地時代의 民族解放運動의 主體였던 基層 勞動者, 農民은 解放後 當然히 獨立國家建設의 主體가 되어야 했음에도 不拘하고 殖民地 殘滓의 온존과 南北分斷, 그리고 政治 經濟構造의 가장 큰 被害者가 된 것이다. 따라

서 이들에게서 分斷時代를 克服하려는 중심적인 에너지를 發見해 내게 된다. 따라서 分斷時代의 解消를 위한 民族統一運動의 主導勢力은 分斷時代의 具體적인 自己 生活속에서 反外勢적이고 民族的일 수 밖에 없는 都市 貧民, 小農・中農等 現在의 矛盾構造를 가장 直接的으로 體驗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sup>17)</sup>

이 말은 都市 貧民, 都市 勞動者, 農村의 賃金 勞動者, 貧農, 中農等, 民衆만이 統一의 切實함을 깨닫고 있고 진정으로 統一을 願하는 勢力이며, 以外の 모든 勢力은 統一을 不願하거나 統一問題에 消極的이라는 主張이다.

왜냐하면 가진 자들은 統一로 잃은 것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統一이 되어도 잃은 것이 없고 얻을 것이 있는 사람들만이 統一을 願할 것이고 現實적인 自己 生活에서 「反外勢적이고 民族일수 밖에 없는 民衆」들만이 統一을 願하기 때문에 이들이 진정한 統一의 主導勢力이 되어 北韓의 民衆과 함께 統一問題를 解決해야 한다는 主張이다.

이 主張은 더 이상 評價할 必要없이 北韓側이 主張하는 「勞動階級을 主動勢力으로 하는 人民民主主義 革命의 成就」를 統一이라고 하는 主張과 類似하다.

金日成은 統一을 『反美 民族解放鬪爭인 同時에 社會主義와 資本主義 사이, 革命과 反革命 사이의 날카로운 階級鬪爭』이라 規定하고 있다.<sup>18)</sup>

이 論理와 別로 다를 것이 없다.

---

註 17) 「韓半島의 危機狀況과 民族統一」, 1985.

18) 「主體思想에 基礎한 南朝鮮革命과 祖國統一理論」. P.186, 1975년, 社會科學出版社 發行

왜냐하면 韓國의 民衆은 그 成分上 反外勢 즉 反美的이며, 反資本 즉 階級的 性格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反外勢, 反美鬭爭과 反資本鬭爭을 전개하는 南韓의 民衆이 主動이 되는 統一이란 바로 社會主義革命에 의한 統一이라는 말이 된다.

最近 運動圈의 刊行物은 公公開하게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韓國 民族民主革命 時期에 있어서 統一問題는 그 本質에 있어서 社會主義 國家인 北韓과 南韓 民衆의 民族·民主 運動間의 反帝共同戰線에서의 一般的인 同盟의 問題이다. 民族解放과 民族統一을 이루는 길은 聯共 聯北 外에는 없다.』<sup>19)</sup>

지금 民衆論者에게 남은 問題는 어떻게 하면 聯共, 聯北의 統一의 길을 열수 있게 하는가에 있다.

그 方法은 民衆이 主力이 되는 民族 民主革命을 遂行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 革命에 대한 保守勢力의 強力한 反對로 平和的인 方法으로 達成될 수는 없다고 判斷하는것 같다.

때문에 그들의 鬭爭은 平和的인 政治鬭爭이 아닌 武裝鬭爭의 過程을 거치게 될 것으로 判斷하는 것이다. 즉

『勞働者와 零細商人, 中小商業者 그리고 學生등 都市 民衆에 의한 都市 暴動과 武裝民衆蜂起 그리고 內戰의 過程을 거쳐 社會革命으로 나아가는 길』<sup>20)</sup> 만이 聯共·聯北에 의한 統一이 可能하게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때문에 交叉承認, 유엔同時加入 올림픽 開催와 같이 北韓側이 원치 않는 統一方案에 대해서는 北韓側의 態도와 똑같은 態度를 보여주고 있다.

---

註 19) 「現情勢와 우리의 緊急한 任務에 대한 評價」, 1987.3.

20) 「民衆, 民主主義, 民族革命의 基本概念을 定立하자」, P.13.

그래야 만이 聯北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이상 感傷的이고 敗北主義的 統一觀이 또 어디 있는가?

北韓側은 南韓內에서는 革命遂行을 위해서는 먼저 青年學生들의 「革命의 架橋的 役割」을 強調하며 「鬪爭의 主力部隊」라 評價한다.

鬪爭의 主力部隊가 「革命의 主力軍」인 勞動階級과 「믿음직한 同盟軍」인 農民을 革命에로 追動하면 南朝鮮革命은 可能하고 그 結果 南韓에 聯共 政權이 樹立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赤化統一로 가는 過程에서 당연히 밟아야 할 코스로 보고 있다.

이른바 合作의 戰術은 廣範한 聯共, 聯北統一戰線을 形成하기 위한 것인데 民衆論者들은 바로 이 戰術에 깊이 빠져있다고 할 것이다.



## 5. 民衆이데올로기의 僞裝性和 欺瞞性

지금까지 民衆論者들이 主張하는 이데올로기와 그 實踐理論(鬪爭理論)의 主要問題를 概略적으로 記述하였다.

오늘날 大學街에서 가장 戰鬪적이고 反體制的이며, 革命的이라고 認定되는 「民民鬪」나 「自民鬪」의 理論을 追跡해 보면 「3民鬪」가 提示했던 理論에서 起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으며 이를 더 깊이 追跡해 보면 70年代以後 民衆論者들의 主張에서 淵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래 革命이란 大衆에 의해 計劃되고 進行되는 것이 아니다.

少數의 엘리트에 의해 은밀히 計劃되고 實踐되면서 大衆을 革命으로 動員하는 것이다.

스탈린은 共產主義革命의 主動勢力을 「政治的 軍隊」라고 呼稱하였다.

「政治的 軍隊」란 무엇인가? 그는 말하기를 『黨이 鬪爭 그 自體를 進行하는 過程에서, 階級間的 衝突의 進行過程에서 大衆自身을 자기의 經驗을 바탕으로 黨의 슬로건이 옳다는것, 黨의 政策이 옳다는 것을 確信시킴으로써 그의 軍隊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政治的 軍隊이다.』라고 하였다.

民衆運動家들은 지금 자신들의 主張이 옳다는 것을 認識시키기 위해 各種 鬪爭을 傳來中에 있다.

이를 위한 實踐理論들을 開發하고 있다. 그래야만이 鬪爭의 理念的 根據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理論과 實踐鬪爭을 통해 자신들의 宣傳煽動에 동조하는 意識分者를 養成해 내고 있다.

바로 이것이 「政治的 軍隊」이다.

그들은 「民衆」이란 主題下에 이데올로기 즉, 信仰의 體系를 形成하였다.

具體적으로 民衆에 대한 一致된 定義조차 내리지 않은채 民衆을 이데올로기화하여 모든 鬪爭을 展開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 現實이지만 그러나 鬪爭의 結果를 綜合하고 評價하는 過程에서 實踐理論들은 發展된 것이다.

오늘날에 와서 民衆이데올로기는 그들이 提示한 口號와 實踐的인 鬪爭過程을 통해 그들 자신의 正體를 명백히 들어 내놓고 말았다.

그것은 暴力으로 自由民主主義體制를 전복하려는 革命的 이데올로기라는 事實이다.

과연 革命後 어떠한 社會體制를 樹立하려 하는가?

그들의 主張은 「民衆政權」 또는 「民衆民主共和國」을 樹立하자는 것이다.

「民衆政權」, 「民衆民主共和國」이란 어떤 政權인가?

運動圈의 文獻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南韓에서 프롤레타리아의 當面한 任務는 農民을 비롯한 諸階級과 同盟하여 美帝와 그 앞잡이 軍事파쇼를 打倒하고 民衆政權을 樹立함으로써 民主主義的 變革을 遂行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變革의 成功的 完遂야말로 社會主義 社會建設의 土臺인 것이다.

프롤레타리아가 遂行해야 할 當面한 革命의 性格은 民族解放 人民民主主義 革命으로 規定한다』<sup>21)</sup>

이 文件에서 명백히 제시된 것이 「人民民主主義 政權」의 樹立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人民民主主義 政權」은 「勞動階級の 獨裁」를 명

---

註 21) 「當面時期에 있어 우리의 戰術」, 1986年

분으로 하는 共產黨 一黨 獨裁政權을 말한다.

지금에 와서는 「民衆」이라는 用語가 「프롤레타리아트와 農民의 同盟」이라는 用語와 同意語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아무리 民衆이라는 用語를 넓게 解釋한다고 해도 그 意味는 「프롤레타리아트의 指導下에 形成된 廣範한 階級の 統一戰線」이란 의미로 밖에 解釋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民衆이데올로기는 共產主義 革命을 위한 廣範한 統一戰線 形成을 위한 이데올로기에 不過하다는 結論에 도달한다.

바로 여기에 民衆이데올로기의 欺瞞性和 僞裝性이 있다.

民衆이란 말은 資本主義體制를 전복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이다.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僞裝된 狀態였다 할 것이나 지금은 그 본색을 들어 내놓았다.

혹시 民衆社會學者와 民衆神學者들은 이런 批判은 右翼과 體制側의 歪曲이고 날조이며 官製 빨갱이를 만드는 것이라고 論할 것이다.

그러나 現在 民衆이데올로기에 심취되었던 젊은 青年學生들이 무엇을 要求하고 무엇을 實踐하는가를 보라!

그들은 自由民主主義體制의 전복을 主張하고 人民民主主義 政權의 樹立을 외치고 있다. 그들은 武裝鬪爭을 計劃하고 暴力革命을 자행하려 하고 있다.

이런 現實을 보고도 民衆이데올로기의 危險性을 경고하지 말라고 할 것인가?

우리國民은 改革을 원한다. 革命을 원치 않는다.

歷史는 漸進的 改良을 통해 發展한다.

革命을 煽動하는 이데올로기는 그것이 赤色이든 白色이든 우리는 反對한다.

民主化를 實現하자면 무엇보다 먼저 이들 革命集團부터 除去해야 한다.

특히 政治人은 자신의 태도를 명백히 밝히고 좌경세력과의 명백한 劃을  
그어야 한다. 우리國民은 필리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되며 더우기 베트남  
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될 것이다.